



‘다니엘 피가 선택한 최상의 프리미엄 싱글빈야드 말벳’

트라피체 싱글 빈야드 말벳 콜레토

Trapiche Single Vineyard Malbec 'Coletto'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말벳 100%		
알코올	1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달콤한 검은 과일의 아로마와 스모키한 오크향, 스파이시한 향신료의 향, 흑연, 감초 등 다채로운 향을 느낄 수 있다. 입안에서 다시한번 달콤한 과일향과 오크향, 그리고 미네랄 터치와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질감을 가진 탄닌이 어우러져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파스타/ 피자		



제품설명



트라피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 80여 개의 싱글 빈야드에서 특별히 3개의 빈야드만을 선택하여 만들어지는 트라피체 싱글 빈야드 말벳은 그 희소성과 뛰어난 퀄리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Wine for Smart Trendsetter”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한국시장을 위해 선택된 싱글빈야드는 '콜레토, Coletto' 빈야드로 해발고도 1,127m의 고지에 위치해 있는 투푁가토 Tupungato)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2014 KWC(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최고의 아르헨티나 와인 대상' 트로피를 수상하며 2012 KWC '최고의 레드 와인 대상', 2013년 KWC '최고의 아르헨티나 와인 대상' 트로피에 이어 연속 3차례 대상 트로피를 수상한 트라피체의 아이콘 와인이다. 포도나무의 평균수령은 약 9년 정도로 손으로 정성스레 수확한다.

수상내역



2020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6점
2020빈티지 팀 아킨 Tim Atkins 96점
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서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톨랑과 합작으로 '이스카이' 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벳'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벳'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벳'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